



송악



최명섭
임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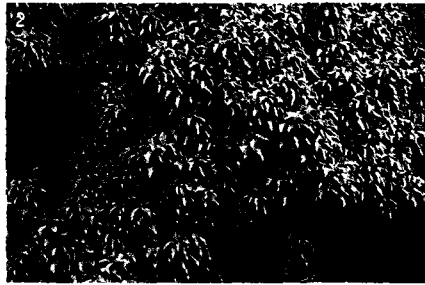
따뜻한 남쪽지방에 가 보면 담장이나, 울타리, 나무가지 암벽 가릴 것 없이

과명 : 두릅나무과
학명 : *Hedera rhombea* Bean
영명 : Ivy, Japanese Ivy

한명 : 常春藤, 龍鱗
일명 : 키즈타

서로 엉키어 숲속의 바닥을 뒤덮거나 나무나 담벽에 붙어 올라 여러가지 모양을 만든다. 송악은 풀 처럼 보이지만 덩굴성 활엽수로 거칠고 매마른 겨울에도 늘 푸른잎을 가지고 반긴

다. “송악”이라고 부르면 너무 생소한 느낌이 드나 거리마다 있는 꽃이나 관엽식물을 파는 가게에 가면 아이비라고 부르는 식물은 흔히 볼수 있다. 아이비가 유럽쪽의 아이비라 하



1. 송악전경
2. 송악 잎
3. 송악줄기
4. 나무줄기를 감싼 송악



면 송악은 우리 나라 “아이비”다. 송악은 우리 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이나 대만까지 분포하므로 동양의 아이비라 할 수 있다.

● 생태적 특성

충청도 이남의 해안과 도서지방의 숲속에서 자생하는 상록활엽의 덩굴성식물로서 길이 10m이상 자라며 잎에 광택이 있다.

송악은 덩굴성 식물인데 다른 식물처럼 덩굴손이 나와 옆의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기근(氣根) 즉 공중뿌리가 나와 암석이나 나무 위에 붙어서 성장하며 음성식물로서 수분요구도가 높아 공중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고 내한성이 강하지는 않으나 중부지방의 해변에서 월동이 가능하다.

송악이라 하면 하잘 것 없는 식물로 보기 쉬우나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입구에 자라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 367호인 송악을 보면 그것에 대한 느낌이 대변에 달라질 것이다.

선운사 입구 좌측에 조그만 하천이 하나 흐르는데 하천 옆 암벽아래 뿌리를 내리고 위를 향해 용트림하면서 이리 휘어지고 저리 뒤틀어지면서 고기그물을 바위에 덮은 것처럼 암벽을 타고 올라간 송악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 형태적 특성

줄기에서 서로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크게 보면 둥근 삼각형인데 어린가지의 잎이나 그늘에서는 셋 혹은 다섯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잎의 길이는 3~6cm, 넓이 2~4cm이다. 꽃은 양성으로 산형화서에 달리며 꽃피는 시기도 특색이 있다. 다른 식물과 달리 10월쯤에 유백색의 타구공만한 작은 꽃송이들을 피우고 열매는 다른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5월쯤에 까맣게 익는다. 자루마다 달리는 열매도 둥글고 재미 있다.

● 조경수로서의 활용

서양 아이비처럼 화분에 심어 공중에 매달아 늘어뜨리거나, 일정한 형틀을 만들어 송악을 덮어 모양을 내어 키워도 좋다. 가리고 싶은 정원의 돌이나 담벼락 등 구조물을 피복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낮은 울타리 골조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려도 볼만하다.

더욱이 상록성이어서 늘 푸른 잎을 달고 있으니 겨울에 가지만 남는 담쟁이덩굴보다 훨씬 유리하다. 추위에 약한 것이 흠이지만 우리 나라에는 동쪽으로 울릉도, 서쪽으로는 전북 고창이 최고이며 중부이북으로는 올라오지 못한다. 서울에서는 밖에 식재시 추운 겨울을 나면 지상부는 말라 죽지만 밑둥은 남아 봄이면 새순이 돌아 다시 푸른 새싹을 튀운다.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 육종한다면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에 푸른 덩굴식물을 볼수 있을 것이다.

● 번식법

4 -종자번식:5월에 성숙된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하고 깊이 2cm, 간격 2cm로 직파하거나 건사저장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 해빙과 동시에 파종하면 발아한다.

-삼목:7~8월경 그 해에 자란 잎과 줄기를 잘라 10cm 길이로 잘라 밑쪽 잎을 따내고 모래에 반정도 묻히게 꽂는다. 이때 발근부에 루톤(발근촉진제)을 묻혀서 삼목하면 발근율이 좋아진다. 꽂은 후는 반그늘로 만들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한다.

● 그 밖의 용도

5 잎에 헤데린이라는 결정성 사포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으며 진정작용과 진균의 성장 억제작용이 있다.

그외 류마티성 관절염, 간염, 비출혈에 3~5g을 달이거나 즙을 내어 복용한다. 또한 열매는 늦가을에 따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빈혈이나, 노쇠현상에 3~9g을 달여 마시거나 술에 담가 마신다. **조경수**